

데스크 시각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장 부국장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위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지난 7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 특히 10~20대 젊은 세대들이 촛불 대신 아이돌 그룹 응원봉을 들고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태창'했다. 시국 관련 집회 때마다 불리던 귀에 익은 투쟁가와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그룹의 K-팝을 부르고, 윤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구호를 함께 외치는 모습이 이례로웠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탄핵촉구 집회에서도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능성시험을 마친 고3생과 20대 여성들이 로제 '아파트'와 '임을 위한 행진곡', KIA 타이거즈 선수 응원가 등을 함께 불렀다.

망월묘역에 문헌 '동호'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10일)을 1주일 앞둔 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에 투입된 중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용기 있게 맞선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지지율 10%대의 대통령은 끝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노벨문학상과 계엄령, '다시 만난 세계'

오르며 자멸의 길에 들어섰다.
“정의에 어린마음 불태우고 세상 어둔 곳에 촛불 되는 사랑하는 나의 아우여 순수한 너의 열정은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구나!”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힌 양창근(당시 17살·송의 실업고 1학년) 열사의 비석 뒷면에 새겨진 문구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인 문재학(당시 16살·광주상고 1학년) 군이 간절하게 찾아다니던 초등학교 친구 '정대'의 실제 모델이다. 1980년 5월 21일 광주 대인동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인근에서 머리에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해 망월 묘역에 묻혔다.
그런데 41년이 흐른 지난 2021년 12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무명(無名)열사 유전자검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 양 군으로 알려진 '1구역-38'에 안장된 유해는 김광복(당시 14살)군으로 확인되고, '4구역-96' 무명열사 유해가 양창근 군 유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이다.
광주상고(현 동성고) 1학년 동기인 문재학과 안중필은 5월 27일 새벽 4시경 전남도청 뒤편 건물인 전남도경 2층 복도에서 집압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진압작전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도청에 들어간 외신기자 노먼 소프(아시아 웰스트리트 저널)의 카메라에 두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됐다. 교련복 차림의 두 사람 주위에 총기는 없고 맥다란 빵 두 조각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소설 속 '동호'를 찾아오는 참배객들이 많다고 한다. (문재학·안중필 열사의 묘지번호는 1묘역의 2구역-34, 41번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

다' 등 작품세계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합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산문”이라며 노벨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벨문학상 수상과 비상계엄령 선포,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조합이 2024년 12월에 한국에서 현실화됐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 '80년 5월'과 같은 폭압적 국가폭력이 재연될 수 있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새로운 정치' 바라는 MZ 세대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 MZ 세대의 시위 참여는 소설 속 '동호'와 오버랩 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엄령'을 맞본 젊은 세대는 '새로운 정치'에 눈을 뜨며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1980년과 2024년 10대가 꿈꾸는 '미래'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젊은 세대에 한국 정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치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의 구태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 6장은 아들 '동호'를 잃은 어머니가 화자(話者)로 등장한다. 나무그늘이 햇빛 가리는 것을 싫어하는 '동호'는 어머니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엄마, 저쪽으로 가아, 기왕이면 햇빛 있는 데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 걸어갔네. 엄마야,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아,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

은펜칼럼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주전부리 간식 중에서 대표를 꼽으라면 단연 붕어빵이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감은빛 빵틀에서 노릇하게 익어 나오는 붕어빵에 대한 추억은 한겨울을 따듯한 기억으로 자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재료 가격 상승이 매우 가팔라 '붕플레이션(붕어빵+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오르내린 지 오래다 보니 파는 사람이나 사 먹는 사람이나 모두 아쉽게 되었다.
예초에 붕어빵은 비싸서 안되는 서민 음식이었다. 목적을 갖고 찾는 이보다는 길 가다가 눈에 띄면 들어오는 손님을 주로 하기에 목 좋은 곳에는 으레 붕어빵 장수가 있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최근에는 추억을 더듬고자 해도 발품을 팔아 어렵게 가게를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붕어빵이 호락호락 힘을 잃지는 않는 모양이다. 겨울에는 언제 붕어빵을 만날지 모르니 간속속에 3000원쯤은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MZ들은 전국 붕어빵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앱에 평점과 리뷰까지 올리고 있다. 얼마 전 아들 녀석

붕어빵과 교육

의 성화에 온 동네를 돌아봐도 못 찾은 적이 있는데, 주위에서 소개해 준 어느 오픈 지도에서는 서로가 발품을 팔아 가게 위치와 추억을 소상히도 나누고 있었다.
붕어빵은 '붕어빵이다(갑다)'라는 관용어도 만들어 내었다. 일정한 틀에서 찍어내기에 생김새가 똑 닮은 것에 대한 비유로 아버지와 아들이 빼달은 걸 빗대어 사용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표준화된 인재만을 양성하는 학교 현장을 지적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했던가. 일률적인 것대로 가르치다 보니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성어처럼 수포자(수학 포기자)와 같은 파생물을 만들어 내는 현실에 대한 비유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붕어빵에는 경쟁자 잉어빵이 있다. 밀가루 반죽으로만 만들어 담백함을 내세우는 붕어빵과 달리 잉어빵은 기름이나 버터를 넣어 식감은 더욱 말랑한 편이다. 생김새도 붕어빵은 몸통과 배에만 팔랑금이 들어가고 속이 비치지 않는 반면, 잉어빵은 표면에 기름기가 많고 전체적으로 앙금이 들어가며 반죽이 얇은 편이다. 붕어빵 장수는 우유를 첨가기 위해 밀과 슈크림 앙금을 넣어서서 피자 반죽을 넣은 피자붕어빵, 이른바 피붕이라는 새로운 호적수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붕어빵에 대한 기호도 팔랑금이 들어간 '팔봉파'와 슈크림이 들어간 '슈붕파'로 구도가 같고, 먹는 방식을 놓고도 머리와 지느러미 중 어느 부위부터 먹느냐로 논란을 부르기도 하였다. 지금의 MBT 열풍 이전에 붕어빵 먹는 부위에 따른 성격 테스트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렇듯 붕어빵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거리는 길거리 붕어빵만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돌아보면 한겨울을 상징하는 거리 간식으로 군고구마와 군밤도 있었는데, 안젠가부터 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그 자리를 붕어빵이 차지하였다. 경쟁과 승패를 가르는 제로섬(zero-sum) 경쟁에서 승자가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기호를 적극 고려하는, 쉽게 말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는 변화의 노력이 있었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저렴한 간식의 지위가 위태로워진 순간에도 붕어빵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겨울 삶의 질은 붕세권(붕어빵+역세권)에 있다'는 말처럼 요즘의 붕어빵은 값싼 가격으로 다가오는 서민의 벅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다가가고 있다. 밀키트나 프랜차이즈 붕어빵도 등장했지만 노점 붕어빵에 대한 갈증은 사그라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교육을 굳이 붕어빵에 비유한다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앞세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은 다양성 교육이며, 시험이 교육과정을 우선할 수 없다고 수능을 창시하였던 박도순 교수는 강조하였다. 또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 교육 시스템을 지적하는 것은 학생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발현하여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힘들어서 획일화에 대한 힐난을 붕어빵에 전가하는 것은 붕어빵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춘 특특



조서현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1학년

지난해 발표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경험한 젊은 층이 33.9%에 이른다. 불과 4년 전, 비슷한 조사에서 번아웃 경험률이 9.9%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삶은 점점 더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학업, 취업 준비,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은 마치 끝없는 트레드밀 휠을 걷는 것처럼,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다. 그나마 필요한 건 '쉼'이지만, '쉬면 뒤처진다'는 압박이 우리를 계속 채찍질한다. 그러나 쉬이란 게 유행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이제는 사회도 인정해야 할 때다.
필자는 고등학생 시절, 예상치 못한 가정사와 학업

“청년들에게 쉼을 허락하라”

중단으로 청소년 쉼터에서 2년간 생활했다. 처음엔 멍뚱바리 내 삶에 초조함과 무력감만 가득했다. 친구들과는 학교와 학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책까지 했다.
그러나 쉼터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쉼터의 상담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천천히 정리하며, 처음으로 '쉼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 시간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설 용기를 얻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그 이후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자취를 시작하며 '나만의 공간'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했다. 매달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속도를 찾기 시작했다. 쉼이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제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깨달은 셈이다.
우리 청년 세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다. 청소년기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서 빛나는 20대를 보냈다. 거기에 더해 치솟는 집값,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은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사고방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번아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번아웃을 직업 관련 증후군으로 분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쉼 없이 달리기만 강요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청년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는 이제 청년들에게 쉼을 허락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의 리듬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가 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쉼표는 멈춤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청년들이 각자의 속도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들은 무리한 성과 압박보다 직원의 건강한 워라벨을 고민해야 하고, 국가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
쉼이 허락되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쉼을 통해 청년들이 더 단단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정국 수습 해법은 尹 즉각 직무정지 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테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로드맵 초안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가지 시나리오다.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계엄령 이후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로드맵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눈 가리고 아웅사' 대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준하는 조치'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애써 민심을 외면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들도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함으로써 내란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마당에 국

민의힘이 어쭙잡은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던 당 해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는 것만이 정국 수습 해법이 될 것이다. 방법은 헌법에 따라 자진 사퇴(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두 방식 모두 즉각 직무 정지되지 않으면 시간상으로서는 하야의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 만큼 가장 빠른 해법이다.
탄핵은 이번 주말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남아 있고 탄핵 인용까지 3개월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인용 이후 60일 이내 대선이라는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5월 대선 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일인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거나 최소한 탄핵 가결에 동참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경제 대위기... 여·야 불확실성 해소 함께하길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주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실패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으나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제되면서 가법계 여기저기 해외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을 리스크 대상국으로 보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한 것처럼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것이 해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탄핵안 처리 불발 후 처음 열린 9일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코스닥 주가가 폭락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금융시장이 일제

히 반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 사이를 오르내렸다. 만일 정부가 연금금을 통한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하락과 불안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금융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정치 상황이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인 것도 사실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경제만큼은 함께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1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여당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정치는 불안하지만 한국 경제는 굳건하고, 정치권이 경제를 확고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無等鼓

내란 사태 후폭풍에 대한민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한 치 앞을 모를 혼란 정국에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형국이다. 불확실성(不確實性: uncertainty)이란 완전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정보를 수반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로, 미래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불확실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위험'(risk·위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상에

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경제학의 이익 개념 이론에서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답론은 물론 일상에서도 위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뜻하는 위험과 달리, 불확실성은 발생 가능성과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직면했을 때 대처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비교문화심리학자 흡스테드는 한국인 서는 이 둘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위험을 불러오기 마련이며, 이를 접하면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혼돈에 휩싸여 비이성적 일 수밖에 없어서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불확실성이란 개념을 경제학에 처음 사용한 미국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이 둘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했다. 나이트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는데, 위험이란 단어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경제적인 토론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혼란 정국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